

『빨치산』, 전쟁과 식민의 흔적

변 화 영(전북대 강사)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빨치산, 분단된 한반도의 디아스포라
3. 지리산, 빨치산의 기억과 흔적의 장소
4. 『빨치산』, 통일을 향한 저항 담론
5. 맺음말

국문초록

유기수의 『빨치산』은 분단 이후 지리산에서 활동한 빨치산들의 증언들을 미학적으로 편집하여 한국전쟁과 신식민의 상황을 반성적으로 형상화한 장편소설이다. 빨치산은 분단된 한반도의 디아스포라로 아직도 비전향 장기수와 연좌제 희생자들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토벌대와 치열하게 싸웠던 지리산은 빨치산들이 조국 통일을 위해 투쟁하고 문헌 흔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작가 유기수는 남부군의 핵심 간부들의 증언을 토대로 『빨치산』을 소설화하여 분단된 조국이 통일될 수 있는 길이란 빨치산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빨치산에 대한 집단기억에 균열을 내면서 조국 통일을 향한 내일의 기억을 만드는 기억 투쟁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빨치산』은 분단과 식민에 맞선 저항 담론의 성격이 강하다.

* 본 논문은 혼불기념사업회에서 개최한 「2019 작고 문학인 세미나」(2019.12.11.)에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

주제어 : 유기수, 『빨치산』, 한국전쟁, 지리산,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구술사, 저항 담론

1. 들어가는 말

『빨치산』은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출간된 유기수의 장편소설이다. 전 3권으로 이루어진 『빨치산』은 빨치산 출신의 비전향 장기수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되었다. 빨치산의 증언이란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구술되기 때문에 『빨치산』은 여러 목소리들이 충돌하면서 상보적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말해지지 않은’ 혹은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증언 문학적 성격이 강하다.

『빨치산』은 지리산에 입산한 사람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형상화되었기에 증언자들의 구술은 작가에 의해 미학적으로 편집될 수밖에 없다. 개인기억에 의거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구술은 왜곡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기억이야말로 집단기억이 지닌 폭력적 양상들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수원지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소설적 형상화 과정에서 빨치산을 어떻게 기억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빨치산의 존재란 여전히 쉽게 재현될 수도 연구될 수도 없는 뇌관에 해당되기에 작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적 시점에서 과거의 빨치산들을 소환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연구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지금 ‘우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빨치산』에 등장하는 빨치산은 한국전쟁 시기 지리산을 거점으로 조국해방과 민족해방의 신념을 실천한 사람들이다. 한반도에서 태어났지만 분단과 식민으로 ‘남한’(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국가가 사이에 끼게 된 빨치산은 결국 그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았다. 휴전 이후 미국식의 반공 담론을 수용한 ‘남한’의 국민국가

에서 빨치산들은 오랫동안 소외되고 왜곡되어 왔다. 빨치산의 이력 탓에 대부분은 빨갱이, 공비, 적색분자로 불리며 공동체 ‘밖’으로 밀려났고, 그 일부는 ‘비전향 장기수’가 되었다. 빨치산의 이력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들에게도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굴레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 누구도 남한사회의 중심으로 진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중, 삼중의 ‘반공적인’ 격리 장치로 과거의 시간에 유폐된 빨치산들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침묵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공식적인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전유이다. 증언이 차단된 침묵은 비밀스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망각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저항을 막아내기¹⁾ 개인기억에 의한 빨치산의 증언은 망각의 저편에 내던져진 진실을 되살려 정치적인 저항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겠다.

개인기억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공간이다. 기억이 공간적인 틀을 매개로 서사화 된다고 한다면 『빨치산』에서는 지리산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빨치산의 유적을 곳곳에 간직하고 있는’²⁾ 지리산은 이름 없이 죽어간 빨치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터전이자 비전향 장기수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빨치산』은 공간 연구가 필요하다. 빨치산에게 지리산은 죽음의 공간인 동시에 역사의 공간이다.³⁾ 다른 계층, 다른 지역, 다른 이름의 사람들이 모여 외세 배경과 조국 통일을 외치며 함께 행동하고 함께 싸웠으며 함께 죽었기에 지리산은 죽음과 역사의 공간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

분단과 식민의 상황에서 비롯된 대량학살, 세균전, 연좌제, 이산가족 등의 문제들은 빨치산의 기억이 과거가 아닌 바로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빨치산』에 나타난 기억 투쟁의 양상은 빨치산과 관련된 진실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균일화된 집단기억에 저항할 개인기억의 중요성

1) 아서 클라인만·비나 다스 외, 안종설 옮김, 『사회적 고통』, 그린비, 2002, 213면.
 2) 문동규, 「생태적 삶과 장소, 그리고 지리산」, 『남도문화연구』 29집, 남도문화연구소, 2016, 265면.
 3) 조구호, 「현대소설에 나타난 ‘지리산’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 『어문논총』 47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7, 234면.

을 점검할 수 있는 관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빨치산들의 여러 증언들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무엇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공식 기록과 집단기억에 균열을 내는 시도이자 동시에 유기수⁴⁾의 미학적 편집과 작가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작업과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2. 빨치산, 분단된 한반도의 디아스포라

3권으로 이루어진 『빨치산』은 각 권마다 주인공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 『빨치산』 3권은 「꽃과 銃」, 「뱀사골 이야기」, 「지리산 위령제」, 「지리산에서 여름이 갈 때」, 「배반(背叛)의 땅」 등 5장으로 구성된, 서로 관계가 없는 다른 이야기들이다. 따라서 『빨치산』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거칠게나마 『빨치산』 1, 2, 3권의 공통점을 들자면 주인공들은 공산당에 가입한 적 없는 민족주의자이며, 대학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지리산에 입산한 빨치산으로, 전향을 거부한 장기수라는 정도를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빨치산』의 소설 밖에 존재하는 핵심 증언자들 하종구와 김태규와도 사뭇 다른 내용들이다. 『빨치산』의 소설 속 주인공들과 소설 밖의 증언자들 사이의 교집합적인 요소로는 양자 모두 남한 출신(하종구의 고향은 경남 함양이고 김태규는 경북 성주이다)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빨치산』은 남부군의 핵심 간부였던 하종구와 김태규를 모델로 한 소설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적 관점에서 ‘빨치산’을 소환해야 하는 작가의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유기수는 1924년 정읍에서 태어났다.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수학하였다. 전주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활동하다 1968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호로 박사」가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민족통일문학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2007년 작고할 때까지 유기수는 통일 지향적인 소설을 형상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빨치산』으로 이는 필화 사건을 일으켰던 문제작이었다.

『빨치산』 1권은 23년 만에 출소한 빨치산 출신의 장기수 신진이 이 기자(記者)와 함께 지리산 산행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기자는 선배 이복수의 아들로, 이복수는 해방일보 기자였다. 빨치산 전력이 있는 아버지 때문에 ‘빨갱이 자식’이 된 이 기자는 국가고시를 포기하고 신문사에 입사하였다. 따라서 둘의 산행은 전쟁 체험 세대와 전후 세대의 만남이며 동시에 빨치산 출신의 비전향 장기수와 연좌제 희생자와의 접촉이기도 하다.

신진은 한국전쟁 때 의용군으로 나섰다가 패잔병으로 지리산에 입산하였다. 그는 서울 출생의 대학생으로 친구들이 지리산으로 입산하자 진로를 두고 고민한다. 그렇다고 선부른 선택은 할 수는 없다. 빨갱이라는 사회적 낙인은 자신은 물론 가족을 오랫동안 움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

나라의 명을 거역하여 지리산으로 들어간 ‘산 사람’의 가족들은 ‘빨갱이’라 매도당하여 기를 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부역자 가족 이상으로 사회적 학대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러한 시기에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았다. 신진의 경우에도 똑같았다. (...) 처음에는 ‘총을 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던 신진이었다. 그의 대학 친구들은 많은 사람이 진즉에 지리산에 입산했고, 가족 중 한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고 산으로 들어가면 그 집안은 적색 가족으로 낙인 찍혀 모든 사람이 괴롭지만, 지도자가 한 번 생각을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피를 보게 된다. 신진의 행동은 현재를 토대로 한 조국의 미래와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었다.(1: 125~126)⁵⁾

신진은 오랜 고민 끝에 조국의 미래를 위해 지리산으로의 입산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해 본인은 평생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으며, 가족들은 ‘적색 가족’으로 불리며 사회적 학대를 당해야 했다. 공산당원, 즉 빨갱이가 아닌데도 신진은 독재정부가 정치적으로 악용한 ‘레드 콤플렉스’에 따라 사상범이 되었다. 조국과 민족을 외세로부터 지켜내기

5) 유기수, 『빨치산』, 월간문학출판부, 2002, 125~126면(본 논문의 본문과 인용문에 게재된 숫자 중 왼쪽은 권수를 오른쪽은 책의 면수임).

위해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3년의 세월은 그를 범법자로 만들었고 형무소 독방에서 23년을 살도록 강제했다. 23년의 긴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신진은 돌아갈 조국이 없다는 현실에 당혹스러워 했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국가가 성립된 한반도는 더 이상 그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조국(祖國)이 아니었던 것이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장기수 신진은 미아, 즉 디아스포라⁶⁾가 되고 말았다.

장기수들은 북한을 법적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남한정부로 인해 국제법상의 전쟁 포로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다. 또한 유엔 헌장에 의거하면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따라 북쪽 고향으로 갈 수 있는데도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빨치산은 무조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자였다. 그래서 한 평도 안 되는 독방은 자유와 연인으로부터 격리된 공간이자 장기수의 몸을 순치하는 사육장이 되었다. 그렇다고 폭력적인 전향 공작이 장기수들의 정신까지 길들일 수는 없었다.

도벌대에게든 군경에게든 체포된 빨치산들은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대로 된 심문이나 재판도 없이 ‘앞줄 무기, 뒷줄 사형’ 식의 선고가 횡행할 정도로 반공 국시의 독재정권에서 빨치산 출신이라는 전력은 생사를 위협하는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따라서 수인이 된 빨치산들은 모두 사상 전향서 앞에서 지독한 고뇌를 해야 했다. 전향서만 쓴다면 감형도 되고, 독방 신세도

6) ‘디아스포라’(diaspora)는 ‘국외로 추방된 소수집단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그 개념 자체가 디아스포라가 될 정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람과 장소, 상황을 지시하던 디아스포라라는 용어가 논의를 위한 분석적 도구이자 이념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디아스포라가 민족들의 국제 이주, 이민, 망명, 난민, 소수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빨치산의 경우에는 한반도가 지닌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빨치산은 다른 디아스포라와 달리 분단과 식민이라는 이중적 질곡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분단과 식민의 산물인 빨치산은 휴전 직후 ‘조국’(祖國)과 ‘모국’(母國)이 상충되는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았다. 남한(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국가 사이에 낀 빨치산은 결국 그 어디에도 자유롭게 소속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빨치산들이 외세 배격을 외치며 조국 통일을 위해 싸웠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면하고,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유혹(1: 218)을 치명적 약점을 지닌 빨치산이 물리치기란 너무도 힘든 일이었다. 그렇다고 함부로 전향서를 작성할 수도 없었다. 전향이란 일정 기간 행했던 빨치산으로의 고통스런 경험과 투쟁의 시간들을 부정하는 공식적인 선언이기 때문이었다. 전향을 거부하고 수십 년을 감옥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국가의 폭력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차츰 이를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을 지키는 문제에서 벗어나 인간의 기본적인 자존을 지키는 문제로 생각하게⁷⁾ 되었다. 전향을 거부한 사람들은 형무소에서 오래 버티내야 하는 탓에 더욱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반공이 생사를 결정하는 위압적 상황에서 대다수가 지식인들인 장기술들이 스피박 식의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서발턴은 원래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문제는 말할 자격을 박탈하여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⁸⁾ 『빨치산』의 주인공 신진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독재정권은 빨치산이 말할 수 없도록 ‘빨갱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들을 ‘우리’와 구분하였다. 조국해방과 계급해방을 부르짖으며 분단과 식민 타파에 목숨을 바쳐 투쟁한 대가치고는 너무도 가혹한 형벌이었다. 출소 후 신진은 황숙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황정이에게 차마 딸이라고 밝히지 못했던 것은 연좌제가 지닌 잔인성 때문이었다. 빨치산의 가족들은 경찰의 핍박 끝에 해체되거나 도시 유랑자가 되어 변두리에 모여 살거나 유리걸식을 하는(1: 172) 경우도 많았다. 45년 만에 만난 딸에게 빨치산 전력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빨치산은 이념 항쟁의 성격을 띤 소규모 무력투쟁을 하는 사람들로, ‘파르티잔’(partisan)을 한국식으로 부르는 용어이다. 빨치산의 정식 명칭은 조선 인민유격대이다. 1946년 10월 대구항쟁으로 공산당 활동이 미군정에 의해 비합법화 되고 미군정 비호 아래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선거가 진행 되려고 하자 남로당 계열이 야산대를 조직하여 간헐적으로 투쟁하였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직후 지리산으로 도망친 14연대 군인들을 이현상이 규합

7) 한정훈, 「빨치산 구술생애담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2, 31면.

8) 이진경, 『역사의 공간: 소수성, 타자성, 외부성의 사건적 사유』, 휴머니스트, 2010, 76면.

하여 본격적인 빨치산 무장투쟁에 나섰다.

지리산에서 빨치산이 된 사람은 화전민 가운데도 상당수였다. 동학농민운동 때 산으로 쫓겨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농사꾼이 많았다. 그때만 해도 전 국민의 7할이 농민이어서, 봉기에 가담한 농민들은 입산해 화전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서동권의 할아버지도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농민이었다.

우리나라가 예부터 임금과 양반이 주로 정치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날은 민주주의고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 해서 백성들이 정치를 하게 되었다지만,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어디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는 줄 아시나요? 서민들이 억눌리고 구박 받은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하지요. 옛날에도 구박을 받다 받다 참을 수 없어서 ‘임걱정’이니 ‘장길산’이니, 아니면 ‘홍길동’ 같은 ‘민란’이 일어난 거고, 60년 전에 전봉준 장군의 동학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의 ‘민란’이죠. 우리 할아버지도 ‘동학군’을 하다가 쫓기어 지리산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나는 화전민 3대라 할 수 있어요. 동학혁명 무렵 백성의 재물을 함부로 강탈하고, 양반치들에게 땅을 뺏기고 우리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하여, 이 첩첩한 산중으로 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나는 ‘빨치산’이란 신식말도 모르는 그저 ‘산 사람’이 된 겁니다. 더구나 나는 공산당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1: 41)

아버지에게서 장길산, 홍길동, 임걱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층민의 한을 이해하게 된 서동권은 무장 게릴라 활동이 현실을 변혁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빨치산이 되었다. 그는 달궁에서 남부군의 부대 재편성이 있을 때 자진 입산하였다. 동학군 할아버지가 녹두장군 휘하에서 불의와 맞서 싸웠듯이 서동권은 이현상의 남부군에 소속되어 함께 독재와 식민에 저항하였다. 남부군에 편성된 서동권은 ‘신빨치’에 해당된다.

지리산에서 활동한 빨치산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 통칭되고 있었다. 구빨치, 신빨치, 역빨치가 그것이다. 구빨치는 1944년 징용·징병을 거부한 조선 청년들이 산사람으로 변해 항일했던 민족주의자들과 여순사건 때 합류한 14연대 소속의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순사건으로 입산한 14연대의 주력

부대와 구빨치들은 1949년에서부터 주로 구례, 곡성 야산지대에서 빨치산 활동을 개시하였다. 구빨치들은 오랜 산악전의 경험으로 직감이 발달했다. 특히 14연대에서부터 총을 다룬 경험이 있던 구빨치들이 쏘는 탄환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신빨치는 한국전쟁 시기 지리산 등지에서 입산 활동하던 해방군들이다. 보급투쟁을 함께한 민간인 중에서 선발된 신빨치는 교전 경험이 없기에 세석고원에서 집중 훈련을 받았다. 구빨치에게 공격 전법과 총기 사용법을 배우는 동안 신빨치도 전법이 다듬어져 갔다. 전투는 나약한 신빨치가 강한 빨치산으로 변하는 전환점이 되었다(1: 112~113).

살을 에는 추위와 뼈아픈 기아에 시달리던 신빨치 하순금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 살고 싶어졌다. 그래서 목계 전투에서 전투경찰에게 포위되자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였다. 포로가 된 하순금은 광주의 수용소에 갇혔다가 풀려났으나 3개월 뒤 빨갱이로 몰려 투옥될 위기에 처하자 지리산 토벌대에 자원입대했다. 산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토벌대와 싸웠던 동료들을 향해 총을 겨누어야 한다는 사실에 고민했지만 곧 빨치산의 전력을 지우기라도 하듯 역빨치가 되어 토벌에 앞장섰다.⁹⁾ 수많은 빨치산들이 역빨치 하순금의 활약으로 죽어갔다.

‘쫓같이 사람을 많이도 죽였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명령이 한 것이다.’고 혼자 자위하고 지냈다. 뒤숭숭하게 꿈속을 어지럽히는 것은 사살되어 원귀(冤鬼)가 된 빨치산들이다. 그는 그런 핑계로 죽어간 빨치산의 악령을 피하려 들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명령이 죽인 것이다.’ 숫구치는 밤마다의 아픔에 겨워 그의 굳은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 그 기억을 지워버리고

9) 하순금과 같은 역빨치들로 구성된 보아라 부대는 지리산 지구 전투 경찰 사령부 안에 특별히 설치된 사령관 직속 부대로서 1951년 10월부터 1953년 4월까지 1년 6개월간 존속한 후 해체되었다. 귀순 빨치산들로 구성된 보아라 부대가 해산되어도 역빨치들은 줄곧 활동하였다. 사망이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산에 잔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행방 묘연한 빨치산을 이르는 망실공비(亡失共匪)들을 토벌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1954년 봄 토벌대는 피아골에서 망실공비까지 썰며 말리는 섬멸전을 벌였다. 역빨치의 기습을 받아 ‘망실공비’ 소부대 40명은 그대로 사살되었다.(1: 215)

싶었다.(1: 103~104)

수많은 동료 빨치산들을 죽인 하순금은 토벌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스스로 자위하면서 지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명령이 죽인 것이다’라는 그의 독백에는 나치 친위대 중령 아이히만의 목소리가 겹쳐져 있다. 충실한 명령 이행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는데도, 아이히만은 전범 재판에서 ‘나는 전쟁 규칙과 정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추위와 배고픔과 총격의 고통을 참아내면서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 싸웠던 동료들을 배신하고 살상까지 한 하순금은 어찌하면 ‘우리’의 한 모습일지도 모른다. 보통의 인간이 견뎌내기에 너무도 버거운 그 삼중의 고통이 지금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눈감아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빨치산이 쓰고자 하는 해방의 역사가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한 고통에서 비롯되었다면 더욱 그렇다.

장장 5년 동안 총대를 메고 온 지리산을 누볐던 구빨치, 이 대장(隊長)은 ‘비전향 장기수’로 출소하였다. 왼쪽과 오른쪽 다리가 12센티미터 차이가 나는 그의 다리는 처절했던 지리산 전쟁의 슬픈 상흔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최후의 격전지 피아골에서 총상으로 골절되어 절름발이가 된 다리의 고통을 참아가며 이 대장은 사상 전향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다. 2000년 9월 2일 총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으로 송환되었을 때, 이 대장은 그들을 따라 나섰을 수도 없었다. 남한이 고향인 이 대장이 그렇다고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고향인 이북으로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서 무장 투쟁한 그였다. 민족주의자였던 이 대장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 그 어느 쪽도 소속될 수 없는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았다

3. 지리산, 빨치산의 기억과 흔적의 장소

1948년부터 1955년까지 7년 동안 지리산은 빨치산과 토벌대가 치열하게

싸운 전투의 현장이었다. 지리산이 빨치산의 저항 근거지인 해방구하고 하더라도 미국의 원조가 지속되는 한 전투 주도권은 계속 토벌대가 쥐고 있었다. 미국 공군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상에서의 전투는 토벌대에게 유리했다. 토벌대는 빨치산들이 피난처가 되기 쉬운 사찰도 요새도 화전민의 귀틀집도 모두 불태워 버렸다.(1: 85) 토벌대가 저지른 가장 잔악한 사건은 대성골에서 일어났다.

한국전쟁이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든 1951년 11월 25일 영호남 일대에 응거하고 있는 빨치산들을 절멸하기¹⁰⁾ 위해 백야전전투사령부가 전주에 설치되었다. 백야전전투사령부의 지휘관은 백선엽으로, 그는 1951년 12월 2일부터 공비토벌작전, 일명 쥐잡기 작전을 통해 네 차례나 빨치산 토벌을 진두지휘했다. 토벌대의 주공격 목표는 지리산이었다. 이에 1952년 1월 17일부터 이틀간 8대의 비행기에서 투하된 네이팜탄으로 대성골은 전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죽었다. 57사단 소속의 빨치산들은 전멸되다시피 했으며 산에 사는 사람들도 거의 죽었다. 그 여파로 이현상이 이끌던 남부군도 궤멸상태에 빠졌다. ‘피의 17일’, 대성골 참사 때 이 씨 영감은 화상을 입은 몸을 눈발에 비비며 간신히 살아남았다.

젠장, 나는 총 쏘는 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यो. 51년 겨울 삼동 습격 때, 쌀가마를 지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산으로 들어갔다가 52년 1월 17일 대성골의 폭격에서 네이팜탄을 맞은는디, 아름드리 거목들이 팍 찬 숲은 일순간에 불바다가 되고, 2천3백도로 철철 끓는 불바람에 온 지리산이 한꺼번에 다 타버리는 것 같았어요. 불꽃은 나무들의 정상까지 도달했어요. 불길은 모든 것을 빨아들였어요. 십중팔구는 다 타 죽고 나만 살아남았던 말이지. 고놈의 불폭탄이 무섭긴 무서웠지. 그리고도 전주형무소에서 징역을 3년간을 살아야 했으니, 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을까. 나는 그야말로 ‘산 사람’이지, 빨치산은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됐어. 재수 한 번 더러운 세상을 지금 살고 있구만. 헛허……. 그때 경남도당 소속 남부군은 전멸하다시피 했당개.(1: 163~164)

10) 정관호, 『전남 유격 투쟁사』, 선인, 2008, 151면.

이틀간 네이팜탄의 폭격을 맞은 대성골의 밀림은 그 울창함이 온데간데없이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네이팜은 원자탄 다음의 위력을 지닌 최고의 살인 무기로 미국 공군의 원조 아래 투하되었다. 미군의 네이팜탄 폭발로 리포터 허담은 불에 타 죽었고(2: 141), 대성골이 불에 타는 장면을 목격한 B는 하루 종일 망연자실했다(2: 140). 누구보다도 빨치산으로 잘 알려진 『남부군』의 저자 이태(이우태)도 대성골의 참상을 현장에서 겪었다. 대량학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이태는 지리산 산자락을 전전하다가 2개월 뒤인 1952년 3월 2일 산청군 거림골에서 토벌대에 붙잡혔다. 이때 부상당한 이태는 고교 동창이 토벌대 장교가 된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거림골 전투에서 총에 맞아 눈바다에 쓰러진 기자 출신 빨치산이 청주군의 동창 덕분에 총살을 면했다’(2: 266)는 서술자의 언급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지리산에서 빨치산이 살았다는 흔적은 골짜기마다 봉우리마다 고스란히 남아있다. 전소된 대성골에는 지금 두 가구만 살고 있는데, 땅을 파면 아직 까지도 빨치산이 쓰던 탄창, 총알, 용품들이 발견되곤 한다. 토벌대는 지리산의 빨치산들을 초토화하기 위해 네이팜탄뿐 아니라 세균전도 펼쳤다. 대량학살에 대한 빨치산들의 증오는 토벌대 뒤에서 화학전과 세균전을 펼치는 미군에게 향해 있었다. 7년의 지리산 전쟁이 반식민의 혁명으로 전개된 데는 이러한 상황도 한몫했다.

1951년 이른 봄 백야산의 전남 유격대로부터 시작된 재귀열병은 순식간에 덕유산의 전북부대 및 지리산, 속리산의 남부군에 창궐하여 많은 희생자가 속출했다. 미군의 비행기가 빈번히 저공선회를 하면서 이상 비행을 한 후로 재귀열병이 돌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지리산에서는 재귀열병이 발병한 예가 없어서¹¹⁾ 빨치산들은 미군의 세균전(3: 75)을 의심하였다. 40도의 고열이 한번 내렸다가는 까담 없이 재차 발병한다고 해서 붙여진 재귀열병(再歸熱病)의 환자들로 각 환트(환자 아지트)는 가득 찼다. 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없어 빨치산들은 토벌대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재귀열 박멸 투쟁은 1951년 겨울눈이 내릴 때까지 계속되

11) 정관호, 앞의 책, 129면.

었고, 그로 인한 전력 손실은 전 지구에 걸쳐 실로 막대했다.¹²⁾ 재귀열의 발병은 남부군의 세력을 약화시킨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토벌대는 미군의 원조 아래 화학전, 세균전을 벌여 빨치산을 전멸시키고자 했다. 화학전과 세균전에 노출된 산에 사는 주민들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물론 지리산 이외에서도 토벌대에 의한 양민학살은 계속되고 있었다.

1950년 12월 6일은 전남 함평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던 날이다. 그날 새벽 육군 모부대 병력이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장교와 동촌 마을 주민 55명을 마을 앞 논에 세워 놓고 사살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해 1월 14일까지 40일 동안 남산포·쌍구룡·모평·소계 마을에서 모두 5백24명을 집단 학살했다. 한국전쟁 직후 지리산 주변의 영호남 곳곳에서 ‘공비토벌’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례의 하나다. 이와 비슷한 엄청난 7백여 명의 거창 학살 사건이 발생한 것은 66일 뒤의 일이었다.(1: 93)

토벌대는 함평군의 양민 524명을 집단 학살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월 11일에는 거창군 신원면 주민 719명을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살상했다. 공비 토벌을 구실로 토벌대는 영호남 곳곳에서 무자비하게 양민학살을 자행하였다. 한국전쟁 시기 토벌대에 의한 양민학살은 더 많이 있을 테지만 이는 망각의 시간 속에 묻혀 발화되지 못하고 있다. ‘흔적은 기억과 망각을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해주는 이중의 기호’¹³⁾라고 했다. 민주주의를 구한다는 구실로 혹은 공산주의자를 청소한다는 명목으로 민주주의의 숭고한 선을 호소하면서 양민학살과 폭력 행위들을 이행했기 때문에 기억과 정치를 연결해서 고찰하는 일은 대량학살의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산에서 활동한 빨치산의 섬멸은 제노사이드에 해당된다. 화학전과 세

12) 위의 책, 133면.

13)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백설자·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267면.

군전 및 초토화 작전을 통해 군경토벌대는 ‘공비’, ‘빨갱이’로 호명되는 빨치산을 ‘사상 청소’를 하고자 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리산은 우(右)가 됐던 좌(左)가 됐던 인간을 절멸하기 위한 장소로 부각되었다. 그 죽음의 땅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들이 기록된 것이 『빨치산』이다. 때문에 증언 문학적 성격이 강한 『빨치산』은 공식 기록이 아닌, 개인기억으로 수놓아진 ‘기억의 장소’라 말할 수 있다.

노라는 ‘살아있는 기억’, 개인기억들을 찾아다니면서 역사에 복무하는 기억 대신 진정한 기억을 통해 집단 정체성의 불안과 미래 전망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¹⁴⁾ 따라서 노라가 말하는 ‘기억의 장소’는 ‘공화국’, ‘민족’, ‘프랑스인들’이라는 중심기억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알제리 독립전쟁 같은 식민 지배와 관련된 기억의 장소들이 ‘기억의 장소’에서 제외되어 망각의 장소로 남겨졌다는 점에서 노라의 기억 연구가 지닌 위험성이 드러난다. 이 같은 위험성은 독재와 식민의 권력에 저항한 빨치산의 활동무대 지리산이 기억의 장소가 되기보다는 그곳이 빨치산을 토벌한 토벌대의 승리의 현장으로 기억하고자 ‘시도하는’ 기념관의 이름에도 내재해 있다.

남원시 반선마을에는 과거 ‘지리산지구전적기념관’이 있었다. 이 기념관은 지리산지구 빨치산 토벌 전적을 기념하여 1979년 11월 23일 국방부가 건립했다. 지상 2층 건물이었으나 오래되어 철거되었고 탐방안내소가 신축되면서 현재는 지리산지구전적기념비와 이승만 대통령이 썼다는 ‘충훈’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충훈탑만 남아있다. 충훈탑 뒤쪽에는 빨치산을 토벌하다가 희생된 민군경 7,23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어디에도 빨치산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지리산에서 함께 싸웠던 빨치산의 존재는 망각되어 있고 토벌대만 추모되고 기억되는 충훈탑은 사상 차별을 가시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돌아오는 길에 임일과 ‘까치 선생’은 반선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들렀다. “진열된 무기가 다양한데 그 당시의 빨치산의 장비는 더 열악했습니다. 만일 빨치산이 기념관에 전시된 무기를 가졌더라면 토벌대는 희생이 더 많았을 것일

14) 문화사학회 엮음, 『기억은 역사를 어떻게 재현하는가』, 한울아카데미, 2017, 20면.

니다. 이것은 직접 내가 군의관으로 종군하고 있어서 잘 알죠.” “그야말로 전
시를 위한 전시구단.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역사의 진실을 알리겠는가.”(3: 97)

지리산 전쟁에 “군의관으로 종군”한 적이 있는 임일은 지리산지구전적기
념관에 전시된 빨치산의 무기들 대다수가 토벌대 소유라는 것을 알고는 경
악한다. 물질·인적 보급이 차단된 빨치산으로서는 별다른 무기가 있을 수
없었다. 빨치산의 기본 화력은 소총과 수류탄뿐이었고 최신 무기라면 거의
토벌대에서 약탈한 것인데도 전시된 무기들이 마치 빨치산의 소유인양 진열
되어 있다. 까치 선생은 반공 논리에 따른 전시 행태로는 ‘빨치산의 역사적
진실을 알릴 수 없다’며 비판하였다. 민족의 이질성을 획책하는 기념관을 바
라보면서 까치 선생과 임일은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2만여 명의 빨치산들과
민간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새로운’ 추모탑, ‘민족 화합의 탑’(3: 99)이 건립되
기를 기원하였다. 한쪽을 일방적으로 애도하거나 추모하고 다른 한쪽은 망각
하거나 매도하려는 지리산 관련 전쟁기념관¹⁵⁾이나 기념비로는 더 이상 민족
의 동질성 회복에 대한 호소력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부는 정부 수립 직후 한국전쟁 기간에 걸쳐 수많은 사자들을 개
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으로 호명
하고, 이들을 기리는 각종 위령제를 지냈다.¹⁶⁾ 이러한 추모 의례를 통해 빨
치산 섬멸에 앞장 선 군경토벌대는 애도의 대상이 된 반면, 빨치산은 타도의
대상으로 매도되었다. 정부 수립 직후 전몰군경에 대한 각종 기념과 의례가
급증한 시점은 여순사건이 일어난 1948년 10월 이후부터였다.¹⁷⁾ 각종 위령

15) 지리산에서 빨치산과 관련된 기념관은 하동군(지리산역사관, 화개면 화개로 1438)과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사관, 사천면 지리산대로 536)에 소재해 있다. 산청군의 ‘지리산빨치산토벌전사관’은 그 이름 때문에 개관을 앞두고 전시관의 명칭에 ‘빨치산’을 넣을 것인지 ‘공비’를 쓸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 ‘빨치산’과 ‘공비’라는 용어들은 인포된 장소적 기표들 간의 충돌과 인포되지 않은 역사적 의미의 과열음으로 가득 차 있다(김백영·김민환, 『학살과 내전, 공간적 재현과 담론적 재현의 간극』, 『지역과 전쟁』, 휴머니스트, 2009, 398면).

16) 이영진 외, 『애도의 정치학: 근현대 동아시아의 죽음과 기억』, 도서출판 길, 2017, 129면.

제와 추모제가 생겨났고 이를 통해 이승만 정부는 반공국가체제를 향한 권력 기반을 구축해나갔다. 거의 모든 신문에서는 여순사건에 가담한 군인들을 학살의 주체로, 진압과정에서 나섰던 군경을 희생의 주체로 내세우면서 이 모든 참극의 책임이 빨치산에게 있음을 분명히 기술하였다. 이러한 애도의 의례가 지닌 궁극적 목적은 남한 주민들의 시선의 집중과 적극적 참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애도 정치는 죽은 자들을 통해 살아 있는 자들을 결속하고 동원하는 일이 된다.

애도는 기억을 기반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기억이 필요하다.¹⁸⁾ 요즘 인정받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념 방식은 증언이다.¹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7년간의 인민 항쟁의 거점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깊은 숲의 지리산’(3: 68)에서 빨치산으로 살며 투쟁했던 살아있는 증언자들의 기억으로 수놓아진 『빨치산』은 전쟁기념관이나 위령제와 같은 근대적인 기념에 제동을 거는 새로운 기념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빨치산』, 통일을 향한 저항 담론

『빨치산』 1, 2, 3권에는 지리산에 입산한 지식인과 여인의 사랑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삽입되어 있다. 『빨치산』 1권에서는 신진과 황숙의 사랑이야기가, 2권에서는 B와 김태숙의 사랑이야기가, 3권에서는 고훈과 그녀(꽃과 총), 김충희와 백란희(지리산 위령제), 박량과 안민자(지리산에서 여름이 갈 때)의 사랑이야기가 형상화되어 있다. 물론 각 권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 빨

17) 위의 책, 133면.

18) 2001년 5월 26일 달궁에서 열린 ‘지리산위령제’는 생존해 있는 빨치산과 토벌대의 개인기억들이 상충하는 기억 투쟁의 장이었다. 50년 만에 처음 열린 지리산위령제에서 빨치산과 토벌대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잡음도 끊이지 않았지만, 살아 있는 사람들의 기억들이 오갈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19) 정진성, 「서론 트라우마의 귀환」,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2009, 19면.

치산 출신의 지식인들이다. ‘빨치산의 사랑이야기’가 각 작품에서 구속 모티프가 되는 것이다. 『빨치산』 3권에 실린 5편의 중·단편들은 문예지에 발표했던 단편들을 수정 보완하거나 중편으로 개작해 수록한 것이어서 물리적 시간상으로는 『빨치산』 1, 2권보다 앞서 있다. 작품의 발표순서가 논점은 아니지만 스토리 층위에서 『빨치산』 3권의 중·단편들을 분석해 보면 서사화된 중심 사건들이 『빨치산』 1, 2권에서 재차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쨌거나 전3권의 『빨치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작품에 반복되고 있는 ‘빨치산의 사랑이야기’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빨치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대개 비슷한 인생행로를 보이고 있다. 입산-만남-재입산-이별-투옥-재회의 과정이 그것으로, 재회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주인공들은 대학 재학 중 입산했고 교전 중 입은 총상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만난 여인들과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곧 재입산하여 토벌대와 맞서 싸우다가 총격을 받고는 결국 체포된다. 비전향 장기수로 출소하여 사랑하는 여인 혹은 유복자와 재회한다. 사랑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만남-이별-재회로 구성되어 있지만, ‘빨치산의 사랑이야기’에는 지리산으로의 입산과 재입산, 투옥의 과정이 첨가되어 있다. 물론 빨치산을 소재로 한 다른 작품들에서도 『빨치산』에서처럼 ‘빨치산의 사랑이야기’가 서사의 줄거리를 형성하는 구속 모티프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빨치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공산주의자나 북한 출신이 아닌 데도 ‘비전향 장기수’로 출소했다는 대목에서는 사정이 사뭇 달라진다.

『빨치산』에 반복되는 주인공 빨치산의 인생담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따른다. 첫째, 지식인이다. 둘째, 공산당원이 아니다. 셋째, 비전향 장기수이다. 넷째,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 다섯째, 감정 기억이 풍부하다. 다섯 가지 필수 요건들은 『빨치산』이 기존의 다른 빨치산 소설들과의 변별성으로 작용한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가장 흥미로운 점은 감정 기억에 관한 것이다.

감정 기억이란 감정이 뻗 기억을 말한다.²⁰⁾ 기억에 뻗 감정이 유쾌하다면,

20) 한나 모니어·마르틴 게스만,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 문예출판사, 2017, 193면.

우리는 낭만적 태도로 기꺼이 그 기억에 이끌려 일상과 반대되는 세계로 갈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좋은 냄새를 맡았을 때 되살아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토록 신선하고 온전한 이유는 그 기억이 우리 기억 시스템의 외딴 구석에서 외롭게 세월을 견뎌냈다는 점에 있다. 『빨치산』의 주인공들도 이러한 감정 기억이 발달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그들이 사랑에 빠져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매일 되풀이되는 추위와 배고픔, 충격의 두려움에 힘들어하면서도 주인공들이 일상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억 되살리기에 ‘사랑하는’ 연인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수하게 풍족하고 소담스런 벚꽃하며 가지각색의 야생화가 야지랑스럽게 피어나 그것만으로도 그는 그녀에게 연정이 우러났다. 춘삼월(春三月)의 야생화는 짓밟아도 살아나고, 소이탄으로 태워 없애도 살아나고 총칼로 뽑아버려도 살아나고 총으로 쏘아도 살아나고, 독가스를 뒤집어써도 돌아나고 죽어서도 살아난다. 풀꽃은 한 송이 꽃봉오리를 피우기 위해 얼마나 엄동설한 겨울을 보냈던가. 지리산의 꽃은 시들고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피지는 않는다. 춘삼월은 힘든 것을 이겨낸 산 자들의 계절이다.(1: 140)

지리산에서 활동하는 빨치산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은 겨울이다. 겨울에는 눈에 찍힌 발자국을 토벌대가 발견할까 싶어 보급투쟁에 나설 수도 없고, 푹푹 언 시냇물을 깨다가 아지트가 노출될 수도 있어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을 힘들게 견디다 보면 ‘춘삼월의 야생화’가 피어난다. 소이탄에도, 총칼에도, 독가스에도 아랑하지 않고 이듬해 다시 꽃봉오리를 피우는 야생화들은 살을 에는 추위와 혹독한 배고픔과 적의 충격에서 살아남은 신진 자신의 처지와 매우 닮아 있다. 야생화들을 볼 때마다 신진은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렸다. 말하자면, 봄의 전령사 야생화는 황숙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감정 기억의 매개체이다. 사랑의 감정이 총상을 입은 자신을 정성껏 돌봐준 황숙과의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빨치산들은 지리산과 더불어 사는 탓에 계절의 변화를 간과할 수 없다. 또한 하루하루를 온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덕분에 시간의 흐름도 피할 수 없다.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과 관련된 기억들이다.

지리산이란 전설적인 고요함 속에, 떠날 때의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익은 듯 음율적(音律的)인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러나 포성이 격렬할 때는 까마득히 그녀의 존재도 잊어버리곤 했다. 천 년을 두고 역사가 각인되어 있는 지리산이다. 골짜기에서 바라보이는 농도 짙은 운무 위의 해는 마치 달같이 보였다. 밤에 산능선을 넘어 얼굴을 비치는 밝은 달은 몇 번이고 보름달을 지어 보냈는데, 지리산의 밤의 달은 누구를 위해서 비치는가. 빨치산의 전도(前途)인가. 아니면 그녀를 떠오르게 하기 위해선가. ‘그때를 차마 꿈엔들 잊으리라’ B의 망상 아닌 희망이었다.(2: 110~111)

『빨치산』 2권의 주인공 B는 김태숙과 사랑하는 사이이다. 밤이 깊으면 그는 고요한 지리산 위로 떠오른 달을 통해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연인을 떠올렸다. 가끔 낮에 꽃이나 구름을 볼 때도 김태숙을 기억해 낼 정도로 사랑의 감정은 연인을 기억하게 하는 촉매가 되었다. B가 지리산에서 느끼는 추위와 갈증, 피로움 등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작동한 힘이 김태숙이었다. 그에게 김태숙은 조국의 그림자요, 조국에 대한 사랑(2: 287)이었다.

사랑하는 여인이 조국에 대한 은유라는 점은 「지리산에서 여름이 갈 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량이 지리산에서 전쟁을 치르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그의 곁에 그녀가 먼 섬의 등대처럼 있어 준 덕분’(2: 293)으로, 야생화를 볼 때마다 기억나는 안민자는 ‘잊을 수 없는’ 조국으로 연상되는 것이다. 지리산에서의 3년간의 시간뿐 아니라 감옥에서 15년 동안을 갇혀 지내면서 “사랑하는 조국은 작게 짚어보면 안민자였고 사랑하는 안민자를 크게 바라보면 그림고 그리운 조국이었다.”(3: 304)

『빨치산』 전 3권에서 반복되는 사랑이 밴 감정 기억은 그리운 연인을 되살리는 데에만 작동되지 않는다. 동료 빨치산을 사랑하는 동지애, 타인을 너

그렇게 포용하는 관용, 약자를 안타깝게 여기는 연민 등과 관련된 사랑 감정은 주인공들이 연인뿐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인물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의 도화선으로도 작용한다. 이현상에 대한 B의 기억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현상에 대한 B의 감정 기억은 망각의 늪에 내던져진 그를 추모의 대상이 되도록 이끌 뿐 아니라 공적 담론이 주도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부군 소속의 B는 재입산하여 싸우다 다리에 총격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토끼봉에서 투항하였다. 그는 체포되기 직전에 총사령관 이현상을 본 적이 있다. 전투에서 부상당한 대원을 어깨에 들어 메고 먼 거리의 환트까지 데리고 가는(2: 147) 이현상을 목격한 것이다. ‘부상병 어깨에 메고 달리기’ 장면 에 대한 B의 기억 되살리기는 부하를 사랑하는 이현상의 감정을 느끼도록 독자를 이끌 뿐 아니라 그가 훌륭한 인격의 지도자였음을 증명하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²¹⁾ 또한 ‘이현상은 1953년 9월 17일에 영웅답게 자결 했다’(2: 149)는 B의 경험에 의한 진술은 그동안의 공식 기록인 ‘이현상의 타살’과 상충되어 집단기억에 균열을 내고 있다.²²⁾ 뿐만 아니라 B라는 한 개

21) 남부군 총사령관인 이현상이 죽음을 맞이할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백선엽이었다. 그는 1951년 말 백야전전투사령관에 취임하여 1차 토벌작전을 지휘한 적이 있다.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뒤 독립군을 토벌하던 간도특설대에서 장교로 복무한 백선엽이 한국전쟁기 ‘남한’의 육군참모총장이었다는 사실은 이승만 정부의 정체성이 친일과 반공에 기반하고 있음을 대변한 셈이다. 반면, 이현상은 “일제시대 네 번이나 12년 동안 치안유지범으로 옥고를 겪어 온 혁명가”(2: 65)이자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 등을 모두 두루 갖춘’(1: 198) ‘조국이 없으면 민족도 없다’(1: 246)고 굳게 믿었던 반식민적 민족주의자였다. 이현상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감정이 배어있는 증언자들의 기억들은 독자에게 이현상을 조국과 민족 통일에 앞장선 혁명가로 기억하도록 이끌고 있다.

22) 이현상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1953년 9월 18일 오전 열한시 오분경 경찰이 이현상을 쏘아 죽였다’는 내용이 정설(안재성, 『이현상 평전』, 실천문화사, 2009, 547면)이 되어 왔는데, 사실 그 발표를 앞두고 차일혁의 경찰대와 김종원의 군대 사이에 공로 다툼(이현상의 사살 주체는 경찰로 하고 엄청난 보상금과 진급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싸움은 일단락되었다)이 있었다. 『빨치산』의 작가 유기수가 이현상을 자결했다고 진술할 수 있었던 것은 이현상의 최측근인 정치주임 하종구(옥 동무: 녹 동무)와 군사주임 김태규(김

인의 감정 기억은 ‘우리’의 심연 깊이 망각된 채 내던져진 이현상은 물론 빨치산들의 존재를 되살리는 데까지 작동되고 있다.

빨치산들은 개혁주의자들이 무장 저항하는 한 형태였다. 그래서 서로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된 대원들이다. “옳소. 미국놈들을 몰아내야죠.” 들뜬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는다. 침묵의 전사들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은 자기들을 백인이라 하지만 자세히 보면 분홍색인데, 우리들 보고는 황색인종이라 같보거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흰둥이’이니 ‘빨갱이’니 하며 구별하려 들거든. 황색이면 황색이지 또 얼굴에다 색칠을 한다니까.” “여보게 동지 내 얼굴이 빨간가?” “빨강긴, 우리 동네 웅덩이의 가마치색이지.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온 건 아니야? 헛허.” 그때부터 대원들은 그 대원의 성바지를 따지지 않고 ‘가마치 동무’가 됐다. 산에서는 생사를 초월한 유포어가 있다. ‘가마치 동무’는 며칠 후 적과의 접촉전에서 윗팔에 관통상을 입어 하마터면 심장이 뚫릴 뻔했다.(2: 133~134)

B의 동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무장 저항하는 가운데 더욱 깊어졌다. 부패한 독재 권력을 몰아내고 외세의 지배를 타파하고자 입산했던 빨치산들은 미군들이 자신들을 인종과 사상을 동원해 차별하자 이에 대해 함께 반발하였다. 피부색을 통해 ‘황인종’을, 사상을 통해 ‘빨갱이’를 차별하는 미군의 제국주의적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빨치산들은 식민 척결만이 자립적인 조국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 주도의 사상 차별은 좌는 악, 우는 선 또는 좌는 역적, 우는 애국자라는 담론을 양산해 냈다. B를 위시한 대원들은 신식민의 현실을 우스갯소리로 농치거면서 자신들의 신념을 다져나갔으며 투쟁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2차 부상으로 부득이하게 투항할 수밖에 없었던 B는 25년 형기를 마치고 지리산에 오른다. 3년의 빨치산 생활과 25년의 수인생활로 노인이 된 B는

해규)의 증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현상의 거처인 최고 사령부는 지하 동굴에 자리했는데 그곳은 은밀하게 설계되어 있어 장소를 찾아내기 힘들었으며, 정치주임과 군사주임만이 비밀 루트를 통해 출입이 허가되었다(2: 65)고 한다.

정신적 고향인 지리산에 오르며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얼 굴이 검은 ‘가마치 동무’, 할아버지가 동학군이자 화전민 3세인 조관조, 14연 대 출신의 소년병 ‘손자 동무’, 진도가 고향인 유머 감각 풍부한 지리산 산신령의 ‘막내 손자’, 지하운동을 하다 입산한 19세의 ‘진일순과 강정자’,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입산한 ‘다람쥐 소년’, 토벌대가 된 동생 삼봉과 대치상태에 놓였던 형 ‘갑봉이’ 등을 기억해 내면서 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란 자기자신을 형성하는 근원이었음을 깨닫는다. 이로써 B가 남긴 ‘총소리 없는 빨치산의 수기’(2: 280)는 조국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을 위해 지리산에서 죽어간 수많은 빨치산들을 한 명씩 호명하여 추도하는 애도의 장이 되었다. 비록 시공간적으로 독자인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빨치산들이 여기 지리산에서 존재했음을, 그리고 이들의 희생과 고통이 지금 ‘우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총소리 없는 빨치산의 수기’는 암시하고 있다.

전 3권으로 구성된 『빨치산』은 ‘총소리 없는 빨치산의 수기’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편소설에는 빨치산 관련 증언자들의 생생한 체험담이 사실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작가 유기수는 1985년 후반부터 10년 동안 지리산 골짜기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남부군의 핵심 간부들 이외에도 여러 명의 장기수들과 지리산 토벌대장들을 취재하여²³⁾ 그들의 증언들을 미학적으로 편집해 소설화했다. 유기수는 대면한 적 없는 이현상에 대해서는 남부군의 핵심 간부들을 비롯한 빨치산들의 체험담을 토대로 형상화하였고, 가공의 인물 임일을 성격화하는 데는 이영원을 직접 만나 취재했다. 『빨치산』 3권의 「뱀사골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임일은 지리산에 입산했던 의사 이영원이 투사된 인물이다. 이영원에 대한 기록은 『전남유격투쟁사』의 ‘세균전’²⁴⁾ 항목에서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대구의학전문학교 출신인 이영원이 재귀열 환자들을 마파르산 주사로 살려낸 일화는 유명하다(3: 75-76). 약이나 수술 도구 등 진료 시설 장비를 거의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도 이영원은 중증 외상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 수술하였고 질병에 걸린 빨치산들을 정성

23) 유기수, 「작가의 말」, 『빨치산』 3권, 10면.

24) 정관호, 『전남 유격 투쟁사』, 선인, 2008, 128-133면 참조.

것 치료했다.

『빨치산』에서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과 중군 의사 이영원과 관련된 사건들이 독자에게 개연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이들과 함께 소환된 ‘이름 없는’ 빨치산들과의 상호성에서 비롯되었다. 급히 환트로 실려 온 ‘부상당한 대원’과 ‘그 장면을 직접 본 대원들’(2: 147), 그리고 환트에서 치료받았던 ‘10여 명의 재귀열 환자들’과 ‘동상에 두 다리를 톱으로 잘린 젊은 여성 대원’(3: 75)과의 상호적 관계 속에서 이현상과 이영원이라는 인물의 존재가 사실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소설 속에서 이들의 상호성이 동지애와 관용, 사랑 등의 감정 기억에 기반하고 있는 덕분에 반 분단, 반 식민을 향한 빨치산의 무장 투쟁의 기록인 『빨치산』이 궁극적으로 휴머니즘 지향의 저항 담론의 성격을 띠 수 있었다.

외세 배격과 조국 통일을 위해서는 분단과 식민에 맞서는 저항이 필요하며, 그 저항의 원동력은 사랑이 맨 감정 기억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을 『빨치산』에는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전 3권의 『빨치산』에서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감정 기억이 중요하게 반복되는 것은 그 기억이 곧 조국 통일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빨치산들의 일상과 활동이 사실적으로 형상화된 『빨치산』은 결국 ‘7년의 지리산 전쟁’이란 곧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의 역사였음을 생생하게 서사화했다는 점에서 통일 지향적인 증언소설이라 할 수 있다. 『빨치산』을 포함한 『지리산 사람들』, 『북에서 온 기러기』, 『벽소령 가는 길』, 『두만강 7백리』, 『지리산에 핀 꽃은 시들지 않는다』에서 지리산의 비극이 자주 형성화 된 데는 ‘지리산의 화해 없이는 남북의 화해도 민족과 조국의 통일도 없다’²⁵⁾는 유기수의 작가적 소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25) 최명표, 「유기수: 한국 최초의 의사-작가」, 『전북작가열전』, 신아출판사, 2018, 293면.

5. 맺음말

『빨치산』은 분단과 전쟁으로 지리산에 입산해 빨치산으로 활동한 증언자들의 목소리를 작가 유기수의 미학적 편집에 의해 사실적으로 형상화된 증언소설이다. 남부군의 핵심 간부였던 하종구와 김태규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고 비전향 장기수들을 이야기의 구심점으로 삼아 빨치산이야말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 진정한 혁명가였음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작가 유기수는 『빨치산』에서 ‘공산주의자가 아닌’ 비전향 장기수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분단 이후 빨치산으로 활동한 모든 사람들을 ‘빨갱이’로 호도하는 담론들을 비판하는 한편, 남한과 북한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빨치산의 디아스포라적인 위치를 고발하였다. 또한 『빨치산』을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싸웠던 빨치산들을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의 터이자 동시에 이름 없이 죽어간 이들을 추도할 수 있는 애도의 장소로 부각하였다. 조국 통일을 이뤄내고자 지리산으로의 입산과 재입산을 반복했던 주인공의 신념은 곧 소설 밖에 존재하는 작가 유기수의 신념을 투사한 것으로 통일에 대한 그의 강한 열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자료

유기수, 『빨치산 1』, 월간문학출판부, 2002.

유기수, 『빨치산 2』, 월간문학출판부, 2002.

유기수, 『빨치산 3』, 월간문학출판부, 2003.

2. 논저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 2013.

김백영·김민환, 「학살과 내전, 공간적 재현과 담론적 재현의 간극」,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2009, 369-398면.

문동규, 「생태적 삶과 장소, 그리고 지리산」, 『남도문화연구』 29집, 남도문화연구소, 2016, 251-274면.

문화사학회 엮음, 『기억은 역사를 어떻게 재현하는가』, 한울아카데미, 2017.

정진성, 「서론 트라우마의 귀환」,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2009, 13-55면.

서경식, 『고통과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 철수와영희, 2009.

아서 클라인만·비나 다스 외, 안종설 옮김, 『사회적 고통』, 그린비, 2002.

안재성, 『이현상 평전』, 실천문학사, 2009.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백설자·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에드워드 텔프, 김덕현 외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이동재, 「한국문학과 지리산의 이미지」, 『현대문학이론연구』 2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253-272면.

이영진 외, 『애도의 정치학: 근현대 동아시아의 죽음과 기억』, 도서출판 길, 2017.

이진경, 『역사의 공간: 소수성, 타자성, 외부성의 사건적 사유』, 휴머니스트, 2010.

정관호, 『전남 유격 투쟁사』, 선인, 2008.

- 조구호, 「현대소설에 나타난 ‘지리산’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 『어문론총』 47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7, 225-249면.
- 최명표, 「유기수: 한국 최초의 의사-작가」, 『전북작가열전』, 신아출판사, 2018, 288-294면.
- 한나 모니어 · 마르틴 케스만,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 문예출판사, 2017.
- 한정훈, 「빨치산 구술생애담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2.
- 허버트 허시, 강성현 옮김,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책세상, 2009.

【Abstracts】

Partizan, the Vestige of War and Colonization

Byun, Hwayeong

The book *Partizan*, written by Yoo, Gi-soo, is a long novel which described reflectively the situation of Korean war and new colonization through partizans who had been worked around Jirisan mountain. As diasporas those partizans had been connected with the unconverted long-term political prisoners and the victims of the guilt-by-association system. Jirisan mountain is a site of trace, where partizans fought against a punitive expedition. And it is a buried place of partizans who struggled for homeland unification. The writer, Yoo Gi-soo wrote this novel through oral histories of the executives of partizans. He thought that the right path to a unified nation relied on remembering partizans. Therefore, *Partizan* could be called a kind of counter narratives, because it pushed to inspect a collective memory which was distorted and suppressed by the state or the people in power for maintaining regime.

key words : Yoo Gi-soo, *Partizan*, Korean war, Jirisan, partizan, the unconverted long-term political prisoner, oral history, counter narratives

이 논문은 2020년 02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03월 1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03월 1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

